

프랑스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과 정부의 지원

프랑스 바이오업계는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2002년 통계로 250여개의 바이오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 수에 있어서 유럽 3위의 바이오강국이다.

오늘날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프랑스 바이오기업에는 유럽 계농학의 선두주자 젠셋(Genset), 유전자 요법 전문기업이자 비오메리외 알리앙스 그룹의 계열사인 트랑스젠(Transgene), 현 세대 미생물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슈뮤넥스(Chemunex), 그리고 의료 진단학 전문기업 이뮤노테크(Immunotech)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플라멜(Flamel), 세렙(Cerep, 신약 발견 및 개발) 및 니콕스(Nicox)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특히 90년대에 창설된 기업이 대부분인데, 신생기업이 많이 생겨난 이유로는 첫째로 유리한 경제 및 금융 환경을 들 수 있다.

파이낸스 톨과 벤처 캐피탈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주식 시장이 창출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구기업인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창업 열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당국이 일련의 금융 및 구조적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100여 개 기업들이 새로 창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 및 연구에 관한 법(1999년 7월 12일 제정, 법 제 99-587 호)은 연구진들이 기업을 창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법률이다. 이 법의 특징은 혁신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기업에 대한 법제 간소화이다.

BSPCE 제도(스톡 옵션과 비슷), FCPI 제도(혁신 기금) 등이 간소화되었고, 연구세제 혜택을 통하여 기업들의 젊은 연구진 고용을 활성화하였다.

1999년, 정부는 생명기술 및 생명과학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4개 분야를 우선 분야로 책정했다. 계농학 / 포스트계농학, 의학 관련 기술(의학 조영술, 원격의학), 인지과학 / 두뇌과학(신경 과학), 그리고 전염병 퇴치가 그것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억 유로(4,220억원) 이상의 공기업 및 민간 자본이 제놈(GenHomme) 프로그램의 인간 계농 연구에 투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그리고 바이오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이다.

식물 계농 프로그램인 제노플라트에도 공공 식물 연구기관 및 농업 경제 부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5개년 계획인 이 프로젝트에도 2억 천 3백만 유로(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같은 국립 연구 프로젝트에만 연구 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ANVAR (국립기술이전청 - 프랑스 산업 연구부 산

하 기관)은 벤처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 및 민간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업체가 초기 사업 단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랑스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에는 에브리-일 드 프랑스(파리근교 지역), 릴르(노르 파 드 칼레 지역), 스트라스부르(비오발리로 통칭되는 알자스지역), 리옹 및 그르노블(론-알프스 지역), 마르세이유, 몽펠리에, 툴루즈와 보르도 등이 있다.

정부기관인 프랑스투자진흥청은 주요 바이오클러스터가 소재한 지역의 경제개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프랑스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유럽 및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투자진흥청 (Invest in France Agency)

오 성림 투자담당관
 전화 : 02-564-0419 팩스 : 02-3452-9025
www.investinfrance.or.kr
korea@investinfrance.org
seong-leem.oh@investinfrance.org

유럽생명공학크로스로드 2003년 9월 25-26일 프랑스 낭트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행사이다. 이 행사는 세미나와 전시회 그리고 기업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루어져 있다.

250여 참가업체와 3 500명의 참가자가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생물다양성, 약품개발, 의료분쟁, 편당, 성공사례등의 여러 테마를 다루게 된다.

프랑스 릴에서 열린 2002 유럽생명공학크로스로드에서는 CJ, SK, 대웅제약, LGCI, 동아제약 등의 국내 대기업과 기관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벌인바 있다.

www.biotech-nantes.com 사이트 참조
 기타문의 : 주한프랑스대사관 경제상무관실 조일선 상무담당관
 전화 : 02-564-9032 fax : 02-564-9832 ilsun.cho@dree.org